

학생회별 예산안 확정 총6천여만원 각 자치기구별로 배정

87학년도 각 학생자치기구별 예산안이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오늘 17일 열리는 제17차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다.

이날 학생회관 3층 총대의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1백70여만원이 줄어든 총 6천1백40만원을 각 학생자치기구별로 배정했다.

각 기구별 책정된 예산액을 보면 총학생회가 지난해에 비해 5백30여만원이 감소한 2천5백89만9천7백원, 여학생회가 지난해와 동일한 3백만원, 인문대가 70여만원이 증가한 4백30만원, 사과대가 43만원이 증가한 4백60만원, 사범대가 10만원이 감소한 4백95만원, 농과대가 53만원이 증가한 4백10만원, 해양대가 36만원이 증가한 3백85만원, 이공대가 66만원 증가한 25만원, 야간간담부가 25만원 증가한 3백70만원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87년도 학생회비 6천70만5천원(6천3백90원 기준)에 전년

말경에 개회될 예정이다.

상업경시대회 개최

제5회 상업경시대회가 지난 12일 상업교육연구회(회장:김관영·3) 주최로 2223강의실에서 열렸다.

본교 개교기념과 도내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대회에 올해는 도내 5개의 상업계 고교에서 총 42명이 참가, 상업영어와 상업부기 두 분야에 걸쳐 열띤 경연을 벌였다.

한편 이 대회의 시상식은 오는 19일에 있을 예정이다.



△14일 열린 학생대표들과 교수장과의 간담회 광경

「교수협의회」 발기대회 가져 준비위원회 구성, 학원자율성 회복다짐

지난 10일 오후 5시 「교수협의회」 발기대회가 사과대 B동 세미나실에서 전체교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여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교수들은 대학자율성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한편 이날 20일경에 「협의회」를 발족하기로 결의, 협의회가 발족될 때까지 각 단대별 대표 6인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모듬일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또 협의회의 준비위원회 간사인趙誠倫(사과대) 교수가 「교수협의회」를 발족하며 「학원자율성」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 선언문을 통해 「대학은 진리와 정의추구의 장으로서 현사회와 역사의 기본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함께 이를 담당할 지식인의 육성

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전제하고, 「현사회 민주화를 비롯하여 학교운영의 민주화, 연구의 자유화, 교육의 자율화, 학생활동의 자율화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수협의회는 모든 교수의 참여 속에 교수들의 주체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보장하는 교수협의회의 토대로 학원내 모든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교수들의 대표기관이 되어야 하는 물론, 교수들은 사회와 민주화의 기틀을 다지는 지식인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이날 총 5장24조 부칙 1조로 구성된 「협의회」 회칙을 발표했는데 회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6인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 수정 및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는 교수협의회의 및 교수협의회의 규정시안을 마련하고 심의하기 위해 교수 협의회의 회칙을 비롯하여 교수협의회의 회칙안, 교수 협의회의 회칙안, 교수 협의회의 회칙안, 교수 협의회의 회칙안 등 12개조항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군단 간부후보생 임명

본교1002학군단에서는 2학기 간부후보생을 임명했는데, 이날 임명된 대대간부를 보면 △대대장후보생=원경현(이영·4) △부대대장후보생=이영준(국·4) △인사관후보생=김두만(기공·4) △정보관후보생=양동훈(농·4) △작전관후보생=장성철(기공·4) △군수관후보생=김기욱(관·4) 등이다.

소비조합 3백만원 순이익 지난해 1학기보다 1천여만원 감소

87학년도 1학기 소비조합 각 부서별 사업경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매출액과 수익이 증가해 매출 순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과에서 밝힌 1학기 사업경정 실적을 보면 총 매출액이 2억8천5백1천2백90원인 반면 매출원가는 2억4천4백77만1천9백46원으로 매출총이익은 4천2십2만9천3백44원, 사업의 수익이 59만3천8백92원, 식당시설개선등의 비용이 3천7백92만6백90원으로 집계돼 1학기동안 2백90만2천5백46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서별 당기순이익을 보면 자판기부가 8백16만3천1백40원의 순이익을 봤으며 종합매점은 5백5십6만2천2백57원, 사과대매점은 1백2십8만9천8백96원, 해양대매점은 4십5만4천6백12원, 휴게실은 7만3천8백46원의 당기순이익을 봤다.

한편 이와는 달리 1학기동안 식당부는 8백76만7천2백

17일 체육관서 토론회 개최 14일 「학원민주화투쟁선포식」가져

「학원민주화 투쟁 선포식 및 좌담회」가 지난 14일 총학생회(회장:송철관·국·3) 주최로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1백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학생회장은 이날 대회에서 「학원민주화의 전제조건은 사회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학내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철거하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문을 통해 서·원회장(김정열·국·3)은 △문교5원칙을 졸업생에게 전면철폐를 비롯하여 △민주학우 전연복교 △소비조합운영공개 △학생회관 확충 △학칙 및 회칙개정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 6개항을 주장했다.

한편 학생들은 규탄대회에 이어 교내사위를 벌인 뒤 오후 5시경 본관회의실에서 김관영 총장을 비롯한 처·국장들, 총장대표들과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자율화를 위한 학생총회 및 총장담화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17일 오후 1시 실내체육관에서 공개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서클인 토론회 개최

문교5원칙 철폐주장

학원민주화를 위한 「서클인 토론회」가 서클연합회(회장:김정열·국·3) 주최로 지난 14일 10일 이틀동안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개최됐다.

3일 오후 1시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문교5원칙을 비롯한 학칙 및 학생회칙등의 문제점과 서클총회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10일 오후 4시에 문교5원칙 각 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표하고 동시에 서클

토론회 발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번 이틀간의 토론회에서는 서클인들의 참여 부족으로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원에 의하면 서·원 집행부와 서클대표들은 구성된 서클총회보통위원회의가 방학 중 조직되어 서클총회를 위한 여유공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海洋資源研究報告」발간

관련논문 4편 실어

해양자원연구소(소장:李定寧교수·중식학과)에서는 지난 5일 「海洋資源研究報告」 제11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제11호에는 李定寧(중식학과), 盧運(중식학과)교수의 공동논문 「강성돔, Mylio macrocephalus(Basilowsky)의 種生産에 關한 研究」을 비롯하여 高有祿(해양학과)교수의 논문 「제주도 東南方 新淸潭岸域의 動物플랑크톤 群集과 生物量」의 공동논문 2편을 실었고 있다.

강선영 교수 초청강연

경제학과 주최로 열려

미네소타대학 강선영교수(경제학) 초청강연회가 경제학과(학과장:朴祥珠교수)주최로 지난 3일 사과대 시청각교과실에서 개최됐다.

교수·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교수는 「한국경제발전의 실상과 허상」이란 주제에 한국경제의 구조적변화와 해방전후 경제성장의 이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연했다.

원양기관 승선실습 떠나

기관공학과 3학년 학생

기관공학과에서는 지난 7일부터 3학년 37명을 대상으로 한 원양기관승선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실하는 9월30일까지 24일간 실시되는 이 실습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해역을 항해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것과 동시에 일본의 고배, 후쿠오카에 기항, 관련산업및 교육기관을 견학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실습을 마친 학생들은 전공필수 3학점을 취득하게 되며 해기사(3급기관사) 면허취득의 요건을 구비하게 된다.

5천5백77명 1차등록 마쳐 추가등록은 오는 16일부터 3일간

87학년도 제 2학기 1차등록 마감일이 지난 5일 등록대상자 6천4백44명중의 86.5%인 5천5백77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리과에 의하면 단대별로는 인문대 9천8백96명, 해양대 63명, 이공대 63명, 사범대 63명, 농과대 63명, 야간간담부 63명 등 6개 단대가 1차등록을 마쳤다.

한편 추가등록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며 농업중앙회 북제주군지부에 남부하여 한다.

교수동정

△鄭昌朝(출산·교수) = 내년 8월까지 미국버지니아대학에서 농업및 가축생산물 사료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지난 8월30일 출국.

△高南旭(경제·부교수) = 내년 8월까지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에서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경제학을 수학하기 위해 출국.

△朴吉淳(식공·부교수) = 국비해외파견 교수로 88년 8월까지 일본 아사히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 출국.

△金承浩(출산·교수) = 지난 8월17일 미국국제문화재단 초청으로 국제학술회의 참가차 출국.

△金鐵元(체고·교수) = 지난 8월17일 미국 국제문화재단 초청으로 국제학술회의 참가차 출국.

△吳德鐵(과교·부교수) = I B R D의 후원으로 88년 8월 1일까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에서 연구차 출국.

△朴奎殷(과교·부교수) = I B R D의 후원으로 88년 8월 1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연구차 출국.

△梁永五(수교·조교수) = I B R D의 후원으로 88년 8월 1일까지 미국 퍼듀대학에서 연구차 출국.

△金益鎔(수교·조교수) = I B R D의 후원으로 88년 8월 1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연구차 출국.

△盧瑞秀(출산·조교수) = 내년 2월28일까지 일본동북대학에서 가축유생분식학 연구차 출국.

△徐慶林(법학·부교수) = 지난해 9월15일부터 미국하와이대학에서 1년간 연구를 마치고 지난 8월15일 귀국.

△李宗泰(원예·부교수) = 지난해 8월30일부터 미국농무성농업연구소에서 1년간 연구를 마치고 지난 8월15일 귀국.

▲8월31일자

△吳南三(관공·전강) = 사회과학대학 관공경영학과장 직무대리 겸무를 명함.

△李相福(사회학·전강) =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장 직무대리 겸무를 명함.

▲9월15일자

△黃善澤(영교·교수) = 중앙도서관 겸무를 명함.

△高有祿(해양학·부교수) = 해양자원연구소장 겸무를 명함.

△金秀宗(영교·교수) = 사범대학 부설중고교원연수원장 겸무를 명함.

△下鍾民(영교·조교수) = 여학원연구소장 겸무를 명함.

학내인사

△姜秉원(행정사무관) = 교무처 수업과장에서 교무과장으로 자리바꿈.

△김병준(행정사무관) = 본부 학생과장에서 교무처 수업과장으로 자리바꿈.

△김남식(행정사무관) = 교무처 교무과장에서 본부 학생과장으로 자리바꿈.

술 돌하르방

시대적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역사적 산물 되자

『어느날, 농부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읍내에 있는 장으로 나귀를 끌러가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 이를 부자는 나귀를 끌고 먼지가 나는 시골길을 걸고 있었다. 얼마쯤 가다가 어느 우물가를 지나게 됐는데 마침 우물가에서 물을 주는 아내들이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이들 부자를 보았다. 이 중 한 여인이 「나귀를 평안히 끌러두고 자기들은 먼지속에서 터덜터덜만 가는 꼴이 라니」 하면서 비웃기 시작했다. 이말들은 아버지는 얼른 아들을 당나귀 등에 태웠다. 얼마만가서 이들 부자는 그늘 밑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노인네 곁을 지나게 됐다.

「저것 좀 보게, 늙은 아비는 걸게하고 젊은 녀석이 타고 가다니」 한 노인이 아들을 가리키며 말하자 다른 노인이 「오즈름 젊은 놈들은 도무지 바보이 없어」 하고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자 아들을 내려놓고 대신 당

나귀 위에 올라탔다.

조금 지나서 어느 촌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부인 셋을 만나게 됐다. 부인들은 제각기 「저런 지독한 늙은이가 있나, 어린 아들은 걸게 하고 자기만 타고 가다니」 하며 충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아들을 자기 뒤에 태우고 읍내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다. 이 때 고개 근처에서 밭을 매고 있던 농부들이 「나귀가 당나귀를 위해서 무척 고생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나귀를 매고 가시오」 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이들 부자는 당나귀를 매고 읍내 장터로 들어가는 다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만 웃어버리고 말았다. 당나귀는 놀라서 몸을 뒤돌고 시작하였으나 잡아매었던 줄이 끊어져 당나귀는 홀로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날의 말에 우왕좌왕하다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寓話.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이처럼 시가지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 왔다. 단언해도 무리가 아닐 듯 하다. 유신시대의 학도호국단, 85년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에는 「문교5원칙」이라는 외부적 규제로 인해 대학은 자율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었다는 이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하나, 최근, 불어닥친 민주화 열기는 이제 학내 민주화와 자율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수님들의 자제 또한 변화, 지난 9월10일에는 본교 교수협의회 발기에 이르렀으며 사회와 학내의 민주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대학의 사명완수와 사회의 민주화 완성에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한다」「교수와 학생의 의지가 전폭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되고, 제반업무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되어 한다」「학문연구에 있어서 외부의 제약배제와 교수책임제를 폐지한다」는 등으로 이는 그간 학문연구라는 미명하에 사회와 대학의 비민주적 요소와 부조리를 외면했던 모습들을 적절하고 학내·외 민주화에 주체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교수협의회의 구성은 민주화 자율화 정착에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網】

따라서, 교수협의회의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이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지 못하고 몇몇 구성원에 의해서만 이끌려간다면 이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질해 가는 유훈」로 남을 수 밖에 없을을 명심해야겠다.

21세기를 향한 창조와 도전의 세계

대우테크놀로지

21세기를 향한 창조와 도전의 세계, 대우테크놀로지—
대우테크놀로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대우인의 의지와 감정으로 펼쳐나가는 새로운 첨단기술의 세계입니다.
정보화시대를 여는 뉴미디어기술은 물론 로봇, 레이저,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복합기술이 하나로 결합되어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대우테크놀로지—
대우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로봇산업**
국내최초로 다목적 산업용 로봇 NOVA 10을 자체개발한 대우는 고도의 이동 및 센서기능, 지능을 갖춘 다양한 로봇의 연구개발을 통해 인간의 힘든 일을 대신하는 로봇 시대의 자동화기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 신소재산업**
공의 소재인 탄소 섬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는 대우는 첨단 미래 산업의 필수소재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세라믹, 바이오 소재들을 현실화시켜 신소재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통신산업**
대우는 MODEL-D 컴퓨터 수송, TDX-1 전자정보기 수송, 광통신 선용, 주파수 변환기 등 통신분야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고도종합 정보통신망(ISDN)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 전자산업**
대우는 세계 세븐백회 최첨단방식 디지털 컬러 TV의 개발 등 뉴미디어를 개발하여 가정용 전자(HA)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인간생활을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예술에 있어 暴力의 檢證

문화시론

정치적 견식을 갖춘 뛰어난 예술가의 저널리스트적 작업,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1) 문제제기

자신이 소위된 현실은 언제나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현실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사회를 통해 움직이지 않더라도 오늘날 만연한 개인주의적 폐쇄관념은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나"의 행위와 반대되는 "너"의 행위를 우선 결재하고 비난하며 배척하는 인격화의 대립적 자세로부터 집단 예외적 집단으로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최고의 "善"이라는 도덕적 관념으로까지 비약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은 예술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예술표현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분짓는 양식상의 결과라 치더라도 "나"가 아닌 "너"의 일을 "나"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편협성을 떠나 우리라는 공동의 눈의 예술에 있어서 비인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떤 유약을 떠나서 공권력의 '예술침해'라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특수한 결핵적인 면을 따지지 않는 태도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술 내적인 갈등을 넘어서 예술의 독자적인 존립근거에 대하여 서로 합치될 있는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이거니와, 예술에 있어서 특색의 개입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2) 예술침해의 불합리성

한 대안인데도 된 강의실에 형광등이 켜져 있어 관리인처럼 하아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예부터 「조남정신」이 부활한 달라에 이러한 모습은 선조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다. 아라야 한마디, 학과장 정기검찰을 몸소 실천한 것이 어찌하진지. ○...조남정신... 할일 지난14일 계사판에 부착된 교수회의

예술이 진실로 인간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의 삶을 가로막는 모순적인 '비인간적인 것'을 제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할 때, 적어도 예술가의 시각은 '먼지가 끼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체제에 국한되어 봉사'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자기 창작의 자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예술에 있어서 권력의 부당한 침해를 둘러싼 개인에서 음수로 작용할 수 있는 모색이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예술은 문화·시대의 현실에 따라 그 형태가 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말해서 근본적인 목적으로서 현존체제의 정치적인 의지나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변화가 달라질 것은 물론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타락하지 않음은 심심찮게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예술가의 구속사건이나 작품의 압수, 강제철회 등 이따금 한 번씩 사회에 충격을 주곤 하는 사실에 기초한다. 엄연히 사회 속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적인 변동의 의지가 작용하고, 기존체제와 반체제간의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예술에 있어서도 도덕적 계율의 미술과 새롭게 대두하는 민중미술과 이원적인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이념만을 신봉하고 목표하는 맹목적이고 고압적인 의식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되며 변혁의 원리에 이르게 된다. 과도사회주의적 비전과 논리는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게 나타나면서 정치적인 공약의 수가 많게 되며 이에 상응하여 권력의 집중화를 수반한다. 양자극장(engagement)의 사회참여적인 예술보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 선행하고 권력에게 예술종로가 좌지우지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현실참여에서 예술가를 멀리하여 놓으려고 해도 과도사회에서의 예술가는 지성인으로서는 공의 이슈에 간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역사적인 추세이다.

우리는 85년 아랍미술관에서 있었던 「20대 회전」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화가와 운동권 세력과의 연계조작과 아무 이상없음을 당국이 발표, 세력가의 유언비어유혹적 작용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제



주에서도 있었다. 지난 9월 2일 민족미술협회가 주관한 「민중미술과 민족통일」 큰 그림전」 전국 순회전시중 제주 초대전을 (45 코지동인 초대) 갖는 자리에서 작품 4점의 압수와 화가 1명을 연행조작한 사실이 있었다. 공권력에 침해를 당한 작품이 작품자체로서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인지, 특정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 저촉되었는지는 확실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당혹감을 앞선다. 그리고 예술의 자유를 인정한다고는 하나, 예술은 고요한 중립속에서 박을 내다보지 말아야 한다는

고압적인 의식은 끊임없이 도전받아

예술이 체제의 도구화라는 상황에서 아랍부분을 전도하지 않는 예술활동에 대해 행해지는 지극히 우호적인 예술행정적 지원제도가 이에 대응하는 예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A·하위자가 말하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것"에 가하는 공격으로서의 예술이 오히려 일찍이 당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실재야말로 실로 허무하기까지 하다. 미술평론가 김 윤수의 말대로 "침해를 예술은 언제나 구체적인 생의 현실과 자유, 그리고 휴머니즘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것까지 요소는 예술에

대한 폭력이나 다름없다" 고할 때 위와같은 사실들은 분명 폭력임에 틀림없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불법적인 힘인 만큼, 매우 야만적이며 비이성적인 행위라 생각된다.

예술이 삶을 위협하는 제도를 순환하는 무기로서 나타남을 방지하기 위하여 Thomas Munro의 "독재정권에 있어 폭력적 방해를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는 국민, 또는 피압박 계급의 적이나 적대민족, 적대국가의 적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 임무요, 신의 섭리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 보듯이 우선은 권력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예술이 예술에게 가하도록 폭력을 조정하든지 현대미술에 동원하든지 또는 현실에 무관심한 예술을 생형시켜 자신들의 모순들을 은연하에 막바지 한계에 이르러 비로소 예술단위의 행동으로 그 속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에 명심할 일이다. Lord Acton이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고 말했듯이 예술가의 현실참여라는 문제에서 권력이 미치는 모든 영향들에까지도 "진실의 눈"이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예술가들은 개인주의적 관념을 버리고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용기와 스스로 인간성해체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인간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오늘날에 흔히 나타나는 「문화」를 통한 정치의 비정치화(depoliticization of politics through culture) 현상은 문화조작이 필연적인 체제논리와도 통하며 예술을 점점 체제적 현실로 유도하게 되고, 예술에 있어서 폭력으로 나타나면서 올바른 예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정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예술향방에 기형적인 근본요인이 되는 불합리성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3) 폭력의 해결책

시각 그나라의 문화수준은 문화예술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선진 국가들은 예술을 인간간의 최대영역으로 받아들이면서 창작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창작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예술가의 기본권이며 성역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arl Loewenstein의 분류대로 「정치적인 결정」과 「정치적인 규제」를 예술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일은 현존체제의 정치종로나 예술정책의 면모를 한 눈에 가늠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것임은 뻔한 노릇이다. 이를

粉靑沙器象嵌柳紋梅瓶



박물관 소장품 순례
粉靑에서란 불수 있는 독특한 梅瓶이다. 문양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肩部에는 雨點紋, 腹部에는 柳紋, 底部에는 蓮花紋이 있다. 문양의 기법은 印花紋 또는 白象嵌으로 나타내었다. 이 梅瓶을 보고 있으면, 한 쪽의 동양화를 연상시키게 된다. 그 곳이 어디라도 좋다. 분청의 본 바탕인 연회색의 하늘에는 雨點紋이 있어 세지도 연하지도 않는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리는 곳에는 자갈수록 고개 속이든 버드나무가 있다. 버드나무 옆에서 안개비가 모여 흐르고 폭 폭 떨어지는 곳에는 연못이 있다. 마치, 연꽃은 피어 나 있고..... 필자가 이 梅瓶을 앞에 놓고 마음대로 별을 읽어 왔다. 이 梅瓶의 흙이 있다면 粉靑의 狀態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무사하다면 그것도 흙이 될 듯하여 만족을 가져본다.
△사물유물 : 조선시대(15C)
△크기 : 22.2cm
△박물관 제공

(아) (라) (시) (壇)

심

김 성 회

소리가 없고
육신만이 살아 움직이는
얼룩한 시적이 되어
섬은 있다.
부서지는 바다는
일체의 소리를 거부하는
한 통의 서신이 되어오고
거기 있는 자들에게
송배의 노래를 부르게 할
한 정의 악보가 되어져서
바다는
섬을 향한다.
늘
떠나야 한다
우리가 머무르게 될
그곳의,
가장 안쪽을 향하여서.

<국어국문학과·1>



GoldStar

종합 일렉트로닉스 세계 No.1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Technopia

열기로 가득찬 연구실에서
테크노피아의 세계를
내손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프로젝트는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개발
1984년 금성사 중앙연구소의 20여명으로 구성된 우리팀에 주어졌던 프로젝트는 32비트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개발이었다. 이에 따라 처리속도, 기억용량 등의 향상을 위해 MC68020 CPU를 기본으로, 6중회로기관을 사용했으며, 한글처리도 가능토록해 그 기술적인 의의를 업계에서 인정받았다. 우리는 격렬한 토의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마침내 모델명 GSM-2068을 탄생시켜 1986년 신제품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기쁨을 함께 나눴다. 끈끈한 팀워크에 의한 연구개발이야말로 자동화사회의 실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내손으로 테크노피아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이 기쁨이 이것이 또한 나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

•금성사·금성반도체·금성소프트웨어·금성부품·금성통신·금성전기·금성알프스전자·금성정밀·금성산전·금성계전·금성기전·금성아나일·금성전선